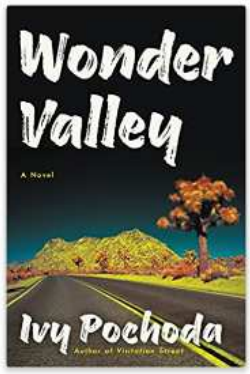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WONDER VALLEY
가제 : 경이의 계곡
저자 : Ivy Pochoda
출판사: Ecco
발행일: 2017년 11월 7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 현대소설

*** 프랑스 판권 계약 체결,**
*** "인간의 회복 능력을 깊이 이해하는 작가" – 「보스턴 글로브」**
*** "사막과 차갑고 푸른 바다까지, 형용하기 어려운 *LA*의 상반된 모습을 유려하면서도 선명하게 그린 책이다." – 「*The Wrong Side of Goodbye*」의 작가 마이클 코넬리**

2010년, 오전 7시면 아직 이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리스 110번 고속도로는 벌써 차들로 가득 찼다. 편도 5차선 도로 위, 운전석에 앉은 사람들마다 조금이라도 더 가보려고 애쓰지만 이미 속도를 거의 내지 못하는 주차장 상태로 변해가는 중이었다. 그러자 운전자들은 다른 일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라디오 채널을 다른 곳으로 바꾸고, 화장품 가방을 꺼내서 못다한 화장을 하고, 뒷좌석에 앉은 동료 혹은 친구와 오늘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다들 이 정도로 일찍 나올 때는 회사까지 거리와 소요시간을 나름 열심히 생각해서 나왔을 텐데, 거대한 도로에 꼼짝없이 발목이 붙들린 건 매한가지였다. 그런데 여느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난데 없이 달리기 하는 남자가 나타났다. 차 안에 앉은 사람들 눈에는 저 멀리 가브리엘스 산이 한쪽 어깨에 올라가 있는 듯한 절묘한 키에 옷을 걸치지 않은 상체에는 수영 선수 같은 근육이 언뜻 보였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양팔을 힘차게 흔들며 달려가는 그 모습은 분명 어딘가 멋진 면이 있었다.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이 차 안에서 아침 첫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최신 가요를 찾아 듣는 동안, 남자는 그런 것 따위 관심도 없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차들 사이를 유유히 누비며 달려갔다. 그런데 이 드넓은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남자는 상체만 벗은 것이 아니었다. 온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였다.

토니도 벌거벗은 남자가 달려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이미 헬리콥터가 공중에 뜨고 라디

오며 텔레비전 방송마다 평일 아침에 고속도로 위를 나체로 달리는 정신 나간 남자 이야기로 시끌시끌했다. 자동차 문 잠그라는 아내의 잔소리 전화에도 아랑곳 없이 토니는 안전벨트를 풀고 차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남자가 지나간 길로 달리기 시작했다. 지극히 평범한 날 벌어진 이상한 헤프닝을 시작으로 이야기는 그물망처럼 촘촘한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리스 곳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브룩클린 출신으로 소년원을 갓 출소해서 수년째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엄마를 찾으러 LA로 온 렌, 사막 지역에 사는 열네 살짜리 쌍둥이 오웬과 제임스, 스스로를 치유자라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 패트릭, 성공한 변호사지만 정작 자신은 일도 결혼생활도 모두 떠나버리고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찾고 싶어 하는 토니까지, 다채로운 자연이 공존하는 LA처럼 각양각색 다양한 주인공들이 그 이야기에 등장한다. 패트릭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마을에서 당황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 그 일로 그의 두 아들 중 한 명이 달아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리고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사건들이 줄을 잇기 시작한다. 사는 방식도 생활수준도 모두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미래를 꿈꾼다는 것만큼은 동일한 인물들에게서는 현실에서 툭 튀어 나온 듯한 생생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알몸으로 아침 고속도로를 달리는 남자와 갑자기 그 뒤를 따라 달리는 남자, 각기 다른 피부색깔과 출신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LA를 바탕으로 작가는 전작 『VISITATION STREET』에서 브룩클린 사람들의 정신을 세밀하게 포착해낸 실력 그대로 이번에는 현대 로스앤젤리스의 단면을 분노와 폭력, 가슴 아픈 고통과 갈망이 가득한 인물들을 통해 그려낸다.

<저자 소개>

아이비 포코다(Ivy Pochoda)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베닝턴 칼리지에서 소설 글쓰기 석사 과정을 마쳤다. 스쿼시 종목 프로 선수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2009년『The Art of Disappearing』으로 데뷔했고 2013년 아마존 최우수 도서로 선정되며 평단의 호평을 받은 『Visitation Street』를 썼다. 「뉴욕타임스」, 「월 스트리트 저널」, 「허핑턴 포스트」 등 여러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HOW I LOSE YOU
가제 : 그대를 잃는 법
저자 : Kate McNaughton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18년 1월
분량 : -
장르 : 소설/ 현대소설

*** 프랑스 판권 계약 체결**

***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뒤에 드러난 충격적인 비밀들, 가슴 아픈 상실을 아름답게 그린 이야기**

마지막 전철이 끊길 때까지 먹고 마시느라 비틀대면서도 길에서 만난 할머니를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애덤은 그런 남편이었다. 어서 달려가야 막차를 탈 수 있다고 에바가 말해봐도 소용없었다. 한밤 중에 누군가를 찾는다는 할머니는 누가 봐도 멀쩡해 보이지 않았고 의사인 애덤은 꼭 집까지 바래다줘야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치매 노인까지 친절하게 귀가시키고 택시에 오른 두 사람은 뒷좌석에 쓰러진 채 집으로 향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탓인지, 에바는 그런 할머니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런던 어느 고급 식당에서 파티를 즐기고, 투자해서 재산 불리는 요령이나 각자 몸담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보다는 할머니처럼 망각의 세계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리고 말없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남편을 보면서 에바는 정확한 이유도 없이 그 동안 꺼내지 못했던 말을 툭 던졌다. 지금 하는 일이 싫다고, 낯선 사람이 이름만 듣고도 에바가 쓴 기사를 떠올릴 정도로 꽤 유명한 저널리스트지만 사실 이제 이 일을 그만하고 싶다는 말이 고요한 택시 안에서 불쑥 튀어 나왔다. 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는 애덤의 진심 어린 염려에 벌써 위로를 받은 에바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은 그의 얼굴을 잠시 뚫어져라 응시했다. 대학 때도 미남이었지만 요 근래 남성미가 더해지면서 더욱 잘생겨진 얼굴 윤곽,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애덤이 나이 들어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겠구나, 그럼 이 맑고 푸른 눈동자는 어떻게 변할까 그런 상상도 해보았다. 불과 몇 십분 뒤를 약속한 진지한 대화, 수십 년을 함께 하리라 생각했던 당연한 전제가 현실이 아닌 그저 소망으로만 남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신발도 벗지 않고 침대에 널브러진 에바는 깨끗하게 바삭거리는 침대 시트와 이불에 새삼 감탄했다. 토요일마다 침구를 깨끗이 세탁해서 다리는 애덤의 부지런한 습관 덕을 톡톡히 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바의 신발까지 손수 벗겨주고 샤워를 하는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유난히 깔끔했다. 그렇게 자신과 집 안 곳곳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일이 고되 보이기는커녕 진심으로 즐기는 것처럼 보여서 에바는 신기하다고 느낀 적도 많았다. 그대로 뻗어 잠든 자신의 곁에서 여느 때처럼 깨끗하게 씻은 후 잠자리에 든 애덤을 몇 시간 뒤, 에바는 섬뜩한 공기 속에서 발견했다. 술 때문에 목이 타서 잠이 깬 줄 알았지만 눈을 뜨고서야 에바는 방안 공기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

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 애덤은 숨소리도 안 내고 자고 있을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치고 들어왔다. 하지만 확인을 해야 했다. 애덤의 몸은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이불 속에 폭 잠겨 있는 그의 몸은 분명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이 찾아오고 분명 몇 시간 전까지 같이 깔깔대던 애덤을 아래층으로 데려가 커다란 비닐에 넣을 때까지 에바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다. 소리를 질러야 하나? 이제 애덤의 눈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나? 이제 침대 시트는 누가 다려주지? 질서도 두서도 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칭찬 받고 동료들에게 존경 받는 똑똑한 의사, 애덤은 서른한 살 너무 이른 나이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지병도 없었던 남편이 자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사실을 에바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절망과 슬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분노, 불신,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이 미친 듯이 몰려와 에바를 온통 집어 삼켰다. 수많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찾아와 같이 흐느끼고 위로했지만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에바의 삶은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고통의 늪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에바가 시작한 건, 두 사람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일이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결혼을 하기까지, 그리고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동안 애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에바는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까지 전혀 접하지 못한 애덤의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에바는 또 다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충격과 마주한다.

극복하기 힘든 사랑의 상실을 그저 슬프게만 그리는 대신 사랑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의미,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 속에도 담길 수 없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뜻밖의 감동을 주는 소설이다. 런던과 베를린을 무대로 유럽의 역사와 21세기 전쟁의 참상까지 폭넓게 담아낸 상실의 이야기이자 사랑 이야기다.

<저자 소개>

케이트 맥노튼(Kate McNaughton)은 파리에서 태어나 현재 작가,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제목 : WHEN WE WERE WORTHY
가제 : 우리가 팀이었던 날
저자 : Marybeth Mayhew Whalen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9월 12일
분량 : -
장르 : 소설/ 심리스릴러, 여성 소설

*** 지난 해 출간되어 현재까지 도서와 전자 책을 합쳐 *50*만 권 이상 판매되며 큰 화제를 낳고 있는 『*The Things We Wish Were True*』작가의 후속작**

마을 전체 인구가 4,162명밖에 되지 않는 월시 같은 곳에서는 비밀이나 사생활 같은 건 기대하기가 힘들다. 교회도 온갖 종류가 다 있고 어느 곳을 택하는 상관은 없지만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핀잔을 듣게 된다.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술집에 몰래 들어가보려 한다면 입구 정도는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변을 지나던 마을 주민을 통해 반드시 부모님 귀에 그 사실이 전해지고 만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 없이 같은 수영 클럽에서 다니며 친구가 된다. 이들이 같은 마을 사람들보다는 '한 팀'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똘똘 뭉쳐지는 시기가 따로 있었으니, 바로 가을 풋볼 시즌이었다. 멋진 야생 고양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 풋볼 팀 '월시 와일드 캣'이 끝내주는 실력을 과시하며 조지아 주 챔피언십 우승을 향해 승승장구하는 상황이라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매 경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그 날도 와일드캣 팀이 28대 7이라는 큰 격차로 우승을 거둔 날이라 온 마을이 들썩였다. 팀이 우승을 거머쥔 금요일 밤, 파티를 준비하는 여학생들은 들뜬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멋을 부리기 시작했다. 풋볼팀 치어리더인 메리 클레어와 브린, 키어리도 메리의 방안에 모여 화장을 고치고 옷을 차려 입었다. 원래 파티마다 운전을 담당하는 레아가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빠진 바람에 오늘 운전은 키어리가 맡기로 했다. 어쩐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세 사람은 서로 머리를 말아주고 화장을 고쳐주고 신나는 음악에 춤까지 춰가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 메리의 차에 한 명씩 자리를 잡고 앉아 키어리가 운전대를 잡고, 라디오에서 아델의 노래가 흘러 나오던 그 순간이 즐거웠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을, 이때로 시간을 되감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 줄도 모른 채 한껏 부푼 기대감으로 거울을 보고 몸을 치장하던 그 시간, 아직 차가 출발하지 않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비극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들 자신도, 세 사람을 아끼던 사람들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다.

누가 사소한 잘못만 저질러도 금세 온 마을에 퍼지는 작은 동네에 사이렌 소리가 귀청을 찢듯이 울려 퍼진 그날 밤의 사건은 마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몇 시간 전, 와일드캣 선수들이 터치다운으로 게임에서 이긴 환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직 미래가 더 많이 남아 있었던 치

어리더 세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가 마을 전체에 전해졌다. 아직 할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많았던 젊은 청춘들의 생명은 자동차 사고로 너무 일찍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화살은 세 사람이 탄 차와 부딪친 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남학생에게로 일제히 향했다. 이 끔찍한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사실도 비난의 불길을 지피는 데 큰 몫을 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비극은 무수한 소문과 의혹을 낳고, 평온했던 작은 마을을 뒤덮은 의심과 비난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묻혀 있던 비밀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왜 그날 레아는 세 사람과 함께 파티에 가지 못한다고 했을까? 3학년생들이 주를 이룬 치어리더 팀에 2학년임에도 운 좋게 가입할 수 있었던 레아는 사고 당일, 아침부터 학교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온 마을이 영웅으로 떠받드는 풋볼 팀 선수들이 치어리더 중 한 명을 자신들의 탈의실에 끌고 들어가 성희롱을 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장난인 줄 알았던 그 여학생은 나중에야 이들이 원한 것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부모님께 이르고 교장에게도 고발을 했다. 그러나 월시 와일드캣이 주 대표 팀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온 학교와 마을에 퍼진 상황에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줄 사람은 없었다. 그저 대충 덮고 넘어가길 바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레아는 몇 시간 뒤, 경기를 앞두고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경기장 밖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퍼레이드를 벌이는 선수들을 보면서 그 불미스러운 일이 떠올라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야기는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세 사람과 가까이 지냈던 레아의 이야기와 함께 사망자 중 한 명의 엄마인 마글린, 사고 가해자로 지목 받은 남학생의 엄마 다시, 그리고 풋볼 팀에 임시 교사로 근무하며 이상한 소문에 휩싸인 교사 에바의 시선에서 사고 이후 펼쳐지는 더 놀라운 상황들을 전한다. 상실과 후회, 수치스러운 기억, 거짓말 속에서 한때 '팀'이라 불렸던 마을 사람들이 산산이 흩어지는 모습과 다시 삶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 펼쳐진다.

<저자 소개>

메리배스 메이휴 웨일렌(Marybeth Mayhew Whalen)은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문학 사이트 '쉬 리드(She Reads)'의 공동 창립자로,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족들과 함께 지역 작가 모임에도 참여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전작인『The Things We Wish Were True』는 출간 당시 아마존 킨들 스토어에서 유료 전자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큰 화제를 모았고 현재까지 실물 도서, 전자책을 합쳐 50만 부 이상 판매됐다.

제목 : THE HALF- LIFE OF BARBARA KIPLING
가제 : 바바라 키플링에게 남은 절반의 인생
저자 : Joanne Sefton
출판사: (추후 확정)
발행일: 2017년 5월 30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스릴러

*** *2017*년 배스 소설 상*(Bath Novel Award)* 후보작**
*** 한 가족을 망가뜨릴 수 있는 *50*년 전의 비밀, 강렬하고 긴장감 넘치는 심리 스릴러**

헬렌에게 비보가 전해진 건 한창 까불 나이라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두 아이들이 밥 한끼 먹으면서 부엌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였다. 이미 음성이 조금씩 갈라지는 것을 느끼고 헬렌의 심장은 쿵쾅대기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진 소식은 역시나 그 직감처럼 안 좋은 소식이었다. 엄마 바바라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가슴에서 멍울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주말에 아빠와 실내 놀이터에 가기로 약속해둔 아이들은 갑자기 할머니 집에 가야 한다는 헬렌의 이야기를 듣고 금세 시무룩해졌다. 데런이 헬렌과 앨리스, 바니를 남겨두고 혼자 집을 나가버린 지 채 6주도 안 된 상황이라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을 아이들에게 보상받고 싶은 심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데런을 떠올리자 화가 치밀었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건 없건 비용이 얼마가 들건 개의치 않고 데런은 두 아이들에게 실내 놀이터에 간다는 둥, 디즈니랜드 이야기를 꺼내질 않나 플로리다에 놀러 가자고 약속까지 했다. 헬렌은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 때문인지, 이런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인지 모를 눈물을 한참 동안 쏟아냈다.

런던에서 엄마아빠가 사는 랭커셔까지 차로 이동하는 건 악몽과도 같았다. 주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꽉 막힌 도로에 꼼짝없이 갇혀서, 이 갑작스러운 방문 때문에 실내 놀이터에 못 가서 마음이 상한 아이들을 위해 틀어준 만화영화 대사와 음악소리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겨우 도착하자 아버지가 핼쑥해진 헬렌의 얼굴을 보고 놀랄 정도였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던 헬렌은 바닥 깔개 밑에 누군가 끼워놓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옅은 녹색 봉투는 입구가 봉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누가 직접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 정면에 '바바라'라고 적혀 있는 걸로 봐서 엄마 앞으로 온 건 확실했다. 아이들이 외투를 벗고 또 온 방을 휘저으며 정신 없이 구는 사이 헬렌은 그 편지를 금방 잊어버렸다. 내일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니 병원에 같이 가자는 아버지의 제안에 귀 기울이느라 더욱 그럴 정신이 없었다.

한참 뒤, 데런이 집을 나간 후 한결 소원해진 시부모님 댁에 아침 일찍 두 아이들을 맡기기로 약속을 정하느라 진이 빠진 헬렌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녹색 봉투에 든 편지가 다시 떠올랐다. 거실 벽난로 선반에 비슷한 디자인의 봉투 두 개가 올려져 있었다. 문득 궁금해진 헬렌이 누가 보낸 편지냐고 묻자 엄마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준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무슨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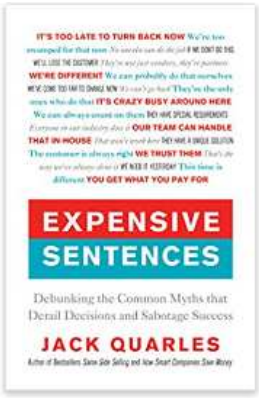
유에선지 엄마가 편지 이야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헬렌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결국 정밀검사 결과 엄마의 왼쪽 유방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당분간 휴가를 내고 부모님 곁을 지키기로 결심한 후, 문제의 녹색 봉투가 또 다시 헬렌의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거실 선반에 어지럽게 쌓인 각종 문서와 종이 더미 사이에 익숙한 봉투가 삐죽 나와 있는 것을 본 것이다. 마침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각이라 헬렌은 그 끄트머리를 잡고 조용히 속에 든 편지지를 꺼냈다. 봉투처럼 은은한 녹색 종이에는 단 네 문장이 대문자로 적혀 있었다. "안녕 바바라, 전 제니퍼라고 해요. 암에 걸렸다니 너무너무 잘됐군요. 당신이 누군지 전 알고 있습니다. 되갚아주러 왔어요." 처음에는 누가 장난친 건가, 싶었지만, 아무리 봐도 장난이 아니었다. 편지지를 쥔 헬렌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걸까? 되갚아준다는 건 무슨 뜻일까?

남편과 별거하고 어린 시절을 보낸 부모님 집에서 잠시 지내게 된 헬렌은 도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엄마를 괴롭히는 건 종양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빠에게도, 딸인 헬렌에게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엄마의 과거와 관계가 있는 일인 건 분명해 보이지만 엄마는 굳게 입을 다물어버리고 상황은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소설은 1960년대 초와 바바라가 암 진단을 받은 2012년을 오가면서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했던 바바라의 비밀과 그것이 그녀 자신은 물론 딸 헬렌에게까지 어떤 엄청난 영향을 낳았는지 보여준다. 복수, 그리고 앙심이 그 마음을 품는 사람과 저주의 대상 모두에게 남긴 깊고 오랜 상처를 긴장감 넘치게 그려낸 심리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조앤 세프턴(Joanne Sefton)은 배스 스파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공부하고 현재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NON- FICTION



제목 : EXPENSIVE SENTENCES

가제 : 값비싼 착각

저자 : Jack Quarles

출판사: Ideapress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2월 7일

분량 : 29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경영

*** 중국(간체) 판권계약 체결**

*** "빈틈 없이 주의를 집중시키는 책. 사적인 것부터 일과 관련된 의사결정 능력이 모두 향상되도록 한다." – 스탠포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 스캇 맥케온**

*** "돈과 시간,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픈 모든 사람에게 지극히 소중한 책이다." – 컨설팅 업체 '*Excella Partners*'의 공동 창립자 겸 대표, 제프 골리모어**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나 만화를 보면 승승장구하던 주인공을 함정에 빠뜨리는 악당이 꼭 나타난다. 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위험을 무릅쓰던 우리의 영웅은 꼭 좋은 일처럼 교묘하게 꾸민 악당의 덫에 걸려 큰 위기를 겪는다. 이런 상황이 영화에서나 생기는 일이면 참 좋으련만, 현실에서도 무수히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혹은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는데 그 순간에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나쁜 결과를 몰고 온 뒤에야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경우 대부분 막대한 후회와 함께 시간, 돈, 귀중한 기회, 심할 경우 더 많은 것을 함께 날려버리고 만다. 영화처럼 악당이 눈 앞에 나타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저자는 현실에서 우리를 물 먹이는 악당은 양의 탈을 쓴 늑대, 겉모습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듬직하지만 속은 시커먼 특징이 있다고 설명한다. 바로 보편적인 지식, 전통적인 지혜,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들이다.

비즈니스 세계의 경우, 업종은 다를지언정 목표는 모두 동일하다. 투자한 각종 자원 대비 최대로 큰 가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일수록 사람들은 결론이 나기 전까지 모든 단계에 심혈을 기울여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실효성도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그러나 잘 진행되던 의사결정의 과정은, 어느 순간 근거 없는 몇 마디 말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그렇게 바꾸기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그 회사가 최곤데 설마 그렇겠어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우리 회사는 달라서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반박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이런 말들은 실제로 팀 회의부터 경영진 전체

가 모인 회의장에서 수시로 오간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말에 동의하고, 이 기준에 따라 추려진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팀이, 혹은 회사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진다. 저자는 당연히 옳은 소리처럼 들리는 이런 해묵은 고정관념이야말로 '친절한 미소를 뒤집어 쓴 악당'이라고 단언한다. 인생을 사는 법이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전략이든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통상적으로 옳다고 인정 받는 정보나 조언을 자주 접한다. 하지만 널리 통용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 무익한 것에 그치지 않고 큰 실패로 이어져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자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처음부터 아예 틀린 것, 진리처럼 느껴지지만 역시나 틀린 것, 자주 거론되지 않지만 한 번 언급되면 설득력이 있는 틀린 정보로 나누어서 각각이 어떤 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극복하는 방안을 알려준다.

역사적인 사례와 실제 산업계에서 벌어진 일들,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다수 소개되어 왜곡되고 근거 없는 판단의 무거운 대가를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듯 무심코 믿어버린 어떤 생각 때문에 성공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정보가 가득하다.

<목차>

머리말. 보편적인 지식의 덫
1부. 틀린 정보에서 벗어나기
1.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어"
2. "지금 당장 해결하자니 너무 바빠"
3. "이미 다 지난 일이야"
2부. 특별하게 느껴지는 틀린 정보를 멀리하라
4. "우린 달라"
5.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6. "늘 이렇게 해 왔잖아"
3부. 보기 드문 틀린 정보를 뒤집어라
7. "내보내자니 지금 그럴 여력이 없어"
8. "무조건 소비자한테 맞춰야지"
9.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거야"
결론.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저자 소개>

잭 퀄즈(Jack Quarles)는 예일 대학교와 노스웨스턴 캘로그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경영전략, 리더십에 대해 강연을 이어 왔다. 저서로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How Smart Companies Save Money』와 『Same Side Selling』이 있다.

제목 : INFIDELITY: Why Men and Women Cheat
가제 : 불륜: 우리는 왜 서로를 속이나
저자 : Kenneth Paul Rosenberg
출판사: -
발행일: 2018년 4월
분량 : 약 250 페이지(65,000- 75,000 words)
장르 : 심리/대인관계

*** 부부관계, 중독 분야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불륜의 실상과 기본적인 원인, 해결책, 극복 방안**
*** 신경과학적 연구결과, 임상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파헤쳐보는 뇌의 성적 기능**

'불륜'은 21세기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뢰도 높은 통계 자료에서도 이성애자인 남성의 21 퍼센트, 여성의 15 퍼센트가 결혼 이후에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저지른 불륜의 90 퍼센트 이상은 배우자가 모르는 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람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것도 분명하고, 젊은 층에서만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거나 불륜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늘 궁금해한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일부일처제라는 보편적인 사회 규율을 무시할까? 정신과 전문의로, 특히 섹스, 중독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온 저자는 이 비극적인 선택의 이면에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뇌 기능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평소 적절히 제어되고 억눌러진 상태로 유지되던 뇌의 성적 기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환상과 강렬한 충동, 사랑, 그리고 섹스에 대한 욕구가 폭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사람과 몇 개월만 지속적으로 만나면 뜨거웠던 감정도 시들해질 수 있고, 이 점을 감안하면 수십 년간 서로 부대끼다 보면 각종 생활상의 부담과 실패, 서로를 향한 실망과 지루함이 더해져 더욱 감정이 메마를 수 있다.

저자는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새로운 만남, 연애, 성적 관계가 마침내 자신에게 진짜 사랑이 되리라고, 그 동안 불만족스러웠던 섹스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감도 높아지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 빠져 바람을 피운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가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신감, 자존감을 오히려 더 낮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이 지경에 이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불륜으로 인해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그간 상담해온 환자들을 통해 명백히 알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애당초 무엇이 사람들을 불륜의 유혹으로 이끄는지 그 기본적인 원인을 짚어본다. 신경과학 분야에서 발표된 최신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직한 마음과 부정을 저지르는 마음, 기억력, 뇌의 보상 체계, 사랑의 감정, 섹스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 왜 이 같은 불륜 행위가 자꾸 확산되고 증가 추세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불륜으로 인해 상처 받았거나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지만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극복 방안을 알려준다.

결혼한 부부가 저지르는 부정 행위는 가족 전체는 물론 자신의 삶도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다. 저자는 인간의 뇌 구조적 특성이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덫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정직하고 온전한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우리 사회의 풍토가 불륜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가 유행처럼 번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간에게 성이 어떤 의미가 있고 정서적, 신체적, 감각적으로 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진정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헌신이 불가능하다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유익한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
1장. 속이는 심리의 기본적인 특성
2장. 강렬한 호기심, 그리고 환상
3장. 가상세계의 불륜
4장. 감정적 불륜
5장.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시점
6장. 늘 관심을 집중시키는 세 사람의 갈등구조
7장. 완벽주의, 선(善)의 적
8장. 일부일처제에 관한 오해, 일부다처제의 유혹
9장. 아이들에겐 무엇을 말해야 하나
10장. 가장 해로운 해결책: 불륜이 좋은 방도가 되는 때, 끝내야 하는 때
11장. 무너진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법
부록, 질문과 답

<저자 소개>

케네스 로센버그(Kenneth Rosenberg)는 웨일 코넬 의과대학 정신과 임상부교수, 뉴욕 장로교병원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정신학적 중독 분야에서 교과서로 일컬어지는 『BEHAVIORAL ADDICTIONS』(Elsevier Academic Press, 2014)에 공동 편집자로 참여했으며 섹스 문제에 관한 주요 학술지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의 자문 편집자로도 활동 중이다. 다양한 매체와 CNN, ABC 월드 뉴스 투나잇, CNBC 등 방송에 정신과 의사, 성 전문 연구자로 소개되고 출연했다.

제목 : THE MACHINE IN THE GHOST: Digitality and Its Consequences
가제 : 유령 같은 기계: 디지털리티의 탄생과 결과
저자 : Robin Boast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7년 2월 13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과학/기술

*** "현대의 계산 문화가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 유창하게 설명해주는 책." – 「*A Geology of Media*」의 저자, 윈체스터 예술대학의 주시 파리카**
*** 디지털 인코딩의 등장과 최초의 전자 컴퓨터, 디지털 문화의 발전 과정을 폭넓게 정리한 정보서**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찾기 힘들다. 게다가 매 순간 온라인 공간에 머무르거나 자신만의 고유한 디지털 공간을 갖고 있지 않아도 거의 모든 현대인이 디지털 형태의 신원(ID)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부기관과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전자 문서로 남겨진다. 디지털 기기는 이제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고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각종 기기를 능숙하게 조작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디지털'이라는 말이 이처럼 널리 쓰이고 그 기술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지금도 이 말이 수수께끼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디지털 기술이란 컴퓨터를 조작하거나 계산하는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계산'하려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스마트 폰 계산기를 켜서 몇 가지 산술계산을 하기도 하고 가끔 스프레드시트를 열어서 자동 수식 기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전부다. 대체 디지털이란 무엇일까? 계산을 하는 것과 컴퓨터를 조작하는 기술은 어떻게 다를까? 최근 대두된 디지털의 고유성, 즉 '디지털리티(digitality)'는 무엇을 의미할까? 저자는 이 책에서 아날로그 기술이 지배하던 세상이 0과 1 단 두 개의 숫자로 컴퓨터라는 기기가 탄생하게 된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질문들의 답을 찬찬히 제시한다. 현대 사회의 핵심 기술임에도 사용할 줄만 알뿐 개발 과정이나 기본 원리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디지털 기술의 모든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한다. 모바일 기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하루에 막대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상, 쏟아지는 정보와 미디어가 포화 상태에 이른 이 세상의 핵심에는 디지털 인코딩이라는 기술이 놓여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컴퓨터나 태블릿 PC, 스마트 폰과 어딘가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어슴푸레 이해할 뿐 더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컴퓨터와 컴퓨터 조작 기술의 역사를 다룬 책들이 방대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멀고 어려운 지식으로 여겨진다. 저자는 이런 통념을 깨뜨리기 위해 무엇이 디지털이고 어떻게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기술이 될 수 있었는지 재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듯 그 역사를 되짚어본다. 1874년 프랑스에서 전신기가 발명되면서 처음 등장한 디

지털 암호화의 초창기 활용 형태부터 최초로 등장한 전자 컴퓨터, 1950년대의 그래픽과 정보시스템 활용, 이어 1970년대에 들어 확대되기 시작한 디지털 미디어, 펀칭 카드를 비롯해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한 과정 등, 다양한 자료와 실례를 통해 저자는 무엇이 현대 사회의 디지털리티와 디지털 매체의 토대가 되었는지 상세히 보여준다.

<목차>

머리말
1. 디지털 코드, 수신용 테이프, 펀치 카드, 인쇄 전신기: 디지털의 기원
2. 컴퓨터가 탄생되기 전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암호화하고 저장했을까
3. 계산 기능의 새로운 등장: 꼭 디지털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
4. 다시 콘텐츠로: 계산 기능에서 미디어로
5. 미디어 클론, 다중 렌더링: 디지털의 결과

<저자 소개>

로빈 보스트(Robin Boast)는 암스테르담 대학교 문화정보과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보, 디지털 문화 분야에서 여러 편의 자료와 논문을 발표해 왔다.

제목: THE LIGHT AND FAST ORGANISATION
가제: 가볍고 재빠른 회사
저자: Patrick Hollingworth
출판사: Wiley- Blackwell
발행일: 2016년 6월 24일
분량: 224 페이지
장르: 경영

*** 무엇도 예측하기 힘든 세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
*** 가변성과 불확실성, 복잡하고 모호한 문제를 이겨내고 험난한 산 정상에 오르듯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

2008년 2월의 어느 날, 스위스의 등반가 율리 스텍은 알프스의 일부이자 예고 없는 폭풍이 수시로 몰아치는 곳으로 악명이 자자한 아이거 산의 북쪽 면을 타고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그것도 무려 두 시간 47분이라는 기록적으로 짧은 시간에 산악 등반의 역사를 새로 쓴 것이다. '신기록의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는 유럽에서 가장 험난한 코스를 선택해 매번 세계기록을 갱신하는 놀라운 사람이었지만 아이거 등반은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결과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단순한 방식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바로 가볍게 오르고, 빨리 오른다는 원칙이다. 10년 넘게 전문 산악인으로 활동하면서 경영 컨설턴트로 활약해온 저자는 이 사례가 오늘날 우리사회의 상황을 완벽하게 대변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우리는 사람과 기술,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호작용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각종 문제에 시달리는데 예측할 수 없고 영향력이 상당히 거칠고 파괴적이라는 점에서 아이거 산에 몰아치는 폭풍과 닮아 있다. 저자는 우리가 마주하는 폭풍이 언제 바뀔 줄 모르는 가변성(Volat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 모호성(Ambiguity)에서 비롯되지만 산업계나 근로자 모두 이 폭풍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부카(VUCA)'라고 명명한 이 네 가지 핵심 문제에 자칫 깊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가볍고 빠르게'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뒤집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 하며 현재 회사가 맞닥뜨린 변화를 있는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황이 전에 없던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고 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볍게, 빠르게 대처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회사는 무슨 일이든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또한 불분명하고 불편한 상황을 무조건 벗어나려고만 하는 대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며 편안한 마음으로 기회를 탐색할 때 성공은 알아서 따라온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새로운 기회나 시장을 뚫으려 해도 진입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회사 일에 무관심한 직원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문제가 성공을 가로막는다고 호소한다. 저자는 VUCA로 요약한 위 네 가지 불안 요소를 기준으로 현재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회사와 사업의 핵심 가치를 끌어 올리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이 책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모두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기겁하거나 몇 번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쉬이 포기해버리는 대대적인 변화와 까다로운 목표를 가볍고 빠르게 달성하는 지름길을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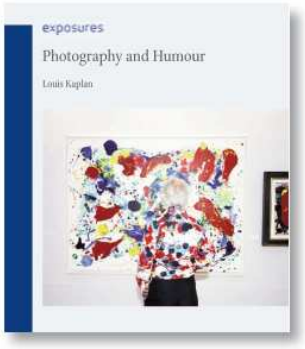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부: 배경
1. 최악의 상황?
2. 부카(VUCA) 세상
3. 옛 시절
4. 체계를 확립하는 법
5. 사람에게 달려 있다
2부. 접근방식
6. 탐험하려는 생각이 틀린 이유
7. 알프스 산에 오른다는 생각이 적절한 이유
8. 변화를 만들어라
3부. 알프스 산 등반 모형
9. 세 가지 기술
10. 세 가지 통찰력
11. 세 가지 형질
12. 종합하기

<저자 소개>

패트릭 홀링워스(Patrick Hollingworth)는 호주에 살면서 영국 막스 앤 스펜서, 미국 쉐브론, 등 전 세계 다국적 기업과 중소 규모 업체, 정부기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연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 산악인으로도 활동 중이며, 15년간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 세계 곳곳의 험준한 산에 도전하며 살고 있다.

제목 : PHOTOGRAPHY AND HUMOUR
가제 : 사진과 유머
저자 : Louis Kaplan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6년 12월 5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취미(사진)/역사



*** "명쾌하고 재미있는 글로 사진이라는 매체의 역사를 심도 있게 조명하고 사진의 수많은 속임수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 예를 보여준다." –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사진부 큐레이터, 미아 파인먼**

*** "병적으로 예민한 사진의 전통에 반기를 들고 얼마나 무수히 많은 유머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 역사를 추적한 책" – 캘리포니아 대학교, 존 C. 웰치먼**

사진 한 장이 강렬한 인상을 주고 오랫동안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다.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답고 놀라워서 숨이 턱 막히는 사진도 있고, 미처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사진 하나가 일깨워줄 때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다. 슬며시 미소를 떠올리게 할 때도 있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배를 잡고 웃게 만드는 사진도 있다. 하지만 사진과 사진기술을 진지한 학문의 하나로 다룰 때는 유독 이 웃음의 기능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병적인 예민함'이라 일컬어지는 사진의 특성과 웃기면 저속하다는 편견 어린 시각에서 빚어진 결과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 책에서 100장이 넘는 사진을 예로 들며 180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사진이 웃음의 매개체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지 보여준다. 일부러 웃기기 위해 만들어진 사진에만 유머가 담기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상황을 풍자한 장면, 합성사진, 초현실주의적인 유머를 추구하기 위해 예술적 기술을 진지하게 활용한 사례, 광학적 왜곡 현상을 적극 활용하여 착시를 유도한 사진과 같이 처음부터 웃음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피사체의 정체성과 개성을 포착한 사진이나 사회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사진, 심지어 죽음을 담아낸 사진이 의도치 않은 웃음을 야기할 때가 있다. 저자는 렌즈 너머로 다양한 이유, 배경, 상황에서 탄생한 각양각색의 사진을 통해 위트와 기막힌 유머를 그 어떤 매체보다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담아내는 사진의 특별한 매력을 보여준다.

'동물 중에 웃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는 말도 있듯이 유머는 오직 사람만이 가진 특성이다. 그래서인지 사진술이 맨 처음 발명된 직후부터 사진은 시각적으로 웃음을 전달하는 새로운 매체로 활용됐다. 일상생활에서 우연찮게 튀어나온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사진으로 차곡차곡 기록되다가 웃음의 매체라는 뜻밖의 기능이 발견되기도 하고, 일부러 설정된 상황에서 가장 우스운 장면을 포착한 경우도 많다. 풍자라는 개념과 결합되어 사회의 특정 계층이나 국민성, 인종을 희화

화하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만 같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인사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나 미처 렌즈를 의식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행동을 포착하여 권위를 일순간 허물어뜨리는 사진들도 많다. 지금까지는 사진이 유머의 매개체로서 역사적으로 기여한 이야기가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지만 저자는 오직 사진만이 담아낼 수 있는 유머의 기능과 보는 순간 주의를 집중시키고 시각적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결코 이 기능을 저속하다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이 책에서 그러한 사진의 매력적인 기능이 근대, 현대 사회 문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실례를 통해 흥미진진하게 설명한다.

대표적인 사진작가의 작품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진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인물들, 아마추어 작가들, 무명 작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유머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재미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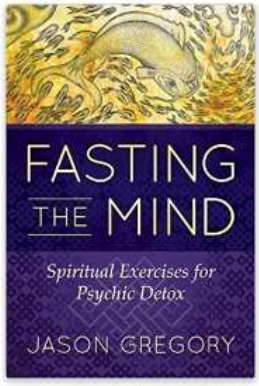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 웃음을 담는 렌즈
2. 정체성과의 관계
3. 찰칵, 사회적 순간
4. 병적인 유머감각
맺음말

<저자 소개>

루이스 캐플란(Louis Kaplan)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사진의 역사와 이론, 신매체를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László Moholy- Nagy: Biographical Writing』(1995), 『American Exposures: Photography and Community in the Twentieth Century』(2005), 『The Strange Case of William Mumler, Spirit Photographer』(2008) 등이 있다.

제목 : FASTING THE MIND
가제 : 마음도 단식이 필요하다
저자 : Jason Gregory
출판사: Inner Traditions
발행일: 2017년 6월 20일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심리학/자기계발



*** "명상에 관한 참신한 생각과 침묵을 통해 자신의 조화로운 진짜 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다는 개념을 소개한 책" – 『*Leap of Perception and Frequency*』의 저자 페니 퍼스**

*** 단식으로 소화기관을 쉬게 하고 해로운 물질을 몸에서 배출하듯 생각을 쉬고 잡념과 해로운 생각을 비우는 '마음 단식'의 원리, 역사, 효과를 소개한 책**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가들과 지금도 전쟁에 시달리는 국가들이 수시로 등장하지만, 사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전쟁은 따로 있다. 국가간의 이해 대립, 종교 분쟁보다 어쩌면 더욱 심각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갈등은 바로 개개인의 머릿속,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아닌 자신의 마음과 의식과 거세게 충돌하는 전쟁, 이 심리적 전쟁은 스스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넘쳐나는 정보, 소화시킬 수도 없는 고민들, 그럼에도 어느 것 하나 진지하게 고찰하지 못할 만큼 바쁜 일상 때문이다. 꾸역꾸역 과도하게 섭취한 음식이 몸에 병을 일으키듯 과도한 생각도 우리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발생시킨다. 저자는 주기적으로 단식을 하여 소화기관을 비우고 신체의 해독을 시도하듯 정신도 주기적으로 비워내는 '단식'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설명한다. 끊임없이 흘러가고 정리할 틈도 없이 채워지는 생각과 정보들을 일제히 끊어내고 침묵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 알고 보면 오랜 옛날부터 행해진 이 마음 단식의 원리가 현대인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저자는 역사적 배경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준다.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나와 남 혹은 남과 또 다른 남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생각하느라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는 순간에도 머릿속이 분주할 때가 많다. 나는 한 사람이지만 생각은 이토록 여러 갈래로 쪼개진 채 하루를 보내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지도 않고 의사결정도 명확히 내리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저자는 무조건 바쁘게 지내야 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 쏟아지는 무수한 정보가 우리를 이와 같은 상태로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이 분산되지 않는 시간, 현재 자신의 위치와 삶의 방향을 조용히 정리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정통 요가와 힌두교, 불교, 도교에서 활용하는 영적 철학과 명상법, 심리학과 인지과학을 포괄적으로 종합하여 현대인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삶의 평화와 평정심을 어떻

게 얻을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우리의 정신을 온통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과 정보들이 하루에도 수 차례 쏟아지지만 명상과 마음 단식으로 심리적 방어막을 탄탄하게 구축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참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생각은 오히려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인간이 가진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반응 능력과 직감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무엇보다 마음이 충분히 이완되고 편안하지 않으면 스스로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심리적 불안정과 불안한 상태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대신 주어지는 자극대로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신세가 된다. 저자는 외부 자극을 자신이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하며, 명상과 마음 단식으로 누구나 그러한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저 깊숙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인간 본연의 특성, 자기 치유력의 놀라운 힘을 끌어내어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고대부터 전해온 치유법
1. 과속은 곧 자살과 같다
2. 신경계의 전쟁
3. 문화적, 역사적 배경
4. 고대의 마음 단식에 담긴 과학적 특성
5. 현대의 마음 단식에 담긴 과학적 특성
6. 마음 단식으로 “나”에 관한 감각을 줄이는 법
7. 마음 단식 실천 방법
8. 마음을 단식하면 깨달음이 찾아온다

<저자 소개>

제이슨 그레고리(Jason Gregory)는 동서양 철학과 비교 종교학, 형이상학, 고대 문화를 가르치는 교사이자 강연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The Science and Practice of Humility』와 『Enlightenment Now』 등이 있다.